**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평안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

동역자님들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의 뉴스를 접한 현지인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본 한국 뉴스는 마음이 아팠고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 등에서 흘린 수많은 피와 성도들의 기도는 주께서 한국과 함께하신 역사가 땅끝 나라의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U부인(64살)**은지난주 저희 집에 와서 예수 영화도 보고 복음을 듣고 11월 28일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던(11년?) 동역자님들과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잡고 걷고 입맛을 잃고 식사도 잘 못해서 쇠약해진 부인이 “영혼을 잃어버렸다면서 저에게 기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부인은 성경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인정하며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고 딸(38살)과 외손자(33개월)가 돌이켜 돌아오면 U부인이 강건해야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고 권면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식사로 영육혼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구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육아와 스트레스로 고등학교때 시작한 취미를 다시 하면서 사격강사를 만났고 남편과 이혼하고 이 남자와 재혼까지 약 6개월간 너무나 많은 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U 부인은 외손자의 장난감과 물건들, 욕실에서 마비가 와서 문제도 생겼고, 딸의 남자 친구가 집 앞에서 새벽에 큰소리로 아버지와 싸우며 통화하는 것을 조용히 통화하라는 이웃의 얘기에 총기를 꺼내서 위협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차된 이웃의 자동차 2대의 유리창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사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인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인들의 집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딸이 가스라이팅인지? 약점을 잡혀서 협박을 당하는지? 사랑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은 것인지? 11월 30일 딸은 결혼식을 앞두고 저에게 엄마가 우리 집에 있는지 문자를 보내와서 부인에게 권면을 할까 얘기했더니 지금은 딸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며 혹시 딸이 저와의 관계도 단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전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15년동안 모은 재산을 위자료로 주고 지금은 관사에서 신접 살림을 차린 것 등등 U부인이 얘기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믿기지 않았지만 U부인의 지인에게 사실임을 확인했고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집에 와서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딸을 긍휼히 여기고 회심하기를, U 부인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A/SV 가정**은 계속 교제하며 어제 A와 복음을 나누었고 예수 영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A는 여러 종교의(회교, 기독교, 카톨릭……) 지식과 철학 등으로 진리를 찾고 있는데, 현지교회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지만, 약속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야 그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이유를 얻기는 했습니다. 성령께서 A의 심령과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N의 셋집은** 지난주부터 수리를 시작했고 어제 가서 N과 공간 활용과 추가할 공사의 의견 조율도 약 1개월간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말쯤 이사할 계획으로 기도합니다. 재계약 기간 5월 전에 이사를 하면 집주인이 문제를 삼아, 현재 집 월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인데 다음주에는 현재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 일하시기를 아뢰어주세요.

**F부인은** 두 아들과 사이가 나빠져 있고 왕래가 없는데, 며느리들과 손자들과는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서, 연말 모임에서 오랜 오해가 풀리고 각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화해하기를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내년에 F부인의 땅과 남동생과 여동생 땅에 한국 채소들을 심을 계획인데, 여동생 S의 아들이 지난 6월에 사망하여 올해 파종한 채소도 모두 말라버리고 계획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 가정 주변 어둠의 세력들을 묶는 기도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중보 해 주세요.

**거주비자 인터뷰(**서류 접수)는 잘 했고 결과와 거주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달러를 빌려서 통장잔고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었는데, 담당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주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U부인과 이번주 금요일 D시의 여동생네 집으로 자동차로 갈 예정인데, 내년에 제가 그곳의 땅을 얼만큼 사용할 것인지 관해서 의논도 하고 올 계획입니다. 한국의 소식과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졌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영혼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나눌 계획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익 교회들과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에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주께 의뢰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계절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도하며 2024년에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땅끝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2024년 12월 12일 김에스더 드림